

“내가 기르는 가축의 건강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수의학박사 강 문 일

금년도 벌써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고 주위의 나무들이 예쁘게 치장하는 만추(晩秋)의 11월입니다. 11월은 바깥 온도가 내려가면서 큰 일교차로 인해 호흡기질병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철저한 농장관리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전국의 종축개량협회 회원 여러분!

가축방역의 가장 큰 목적은 가축질병을 근절해 질병 청정화를 이룩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입니다. 축산여건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어야 살아 남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질병 청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한, 질병의 청정화는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억제 효과와 국내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기반효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축산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비롯한 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 가축질병의 예방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난 대만(‘97) 및 영국(‘01)은 물론 국내(00,02)에서 구제역 발생 시 엄청난 피해로 조기근절이 안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가져왔음을 반추해 볼 때 가축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각오로

한편, WTO체제아래 최근 DDA 등 세계적인 개방화시대를 맞아 중국, 몽골, 러시아 및 동남 아시아 국가들과 인적·물적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05년 4월에 강소성, 산둥성에서 확인된 구제역이 지금은 북경, 허북성, 신강성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이들 구제역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O1 형이 아닌 아시아 1형이었는데 이 형은 지난 3월에 홍콩에서도 발생한 바 있기에 우리는 이 바이러스형의 유입방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농림부는 금년에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중국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그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여 구제역 유입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앙방역기관은 물론 지방방역기관 그리고 생산자 단체 및 유관단체에서 모두 합심하여 국내방역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앞으로 구제역 청정국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국의 종축개량협회 회원님들을 중심으로 더욱 방역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및 2002년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구제역 발생 당시 가슴 아픈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이 불확실성 시대에 축산의 발전을 위해 모든 관련분야의 주체들이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의 3대 요소는 신속한 질병발생 신고와 즉각적인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통제 그리고 발생농장 가축(필요시 인근농장 포함)에 대한 살처분 매몰 또는 소각 등 긴급 초동방역 조치입니다. **이중 제일 중요한 것이 차단방역**으로 농가 출입할 때마다 신발·손 등을 세척·소독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축사에 출입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축산농가에서는 처음 채용시에는

의복·신발·개인용구 등에 대하여 세척·소독을 일상화하도록 철저히 교육시켜야 하고, 농장의 출입시 반드시 앞서 언급한 세척과 소독이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의 한 개 한 개의 농장에서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소독실시** 등 차단방역을 착실히 수행할 때 그 지역의 질병 청정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 국가가 청정화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축산농가 모두가 인식을 같이해야만 가축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국의 종축개량협회 회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내가 기르는 가축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신념과 각오로 외부인 및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는 물론 농장입구와 축사 내·외부에 대한 세척 및 소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십시오.

아울러, 저희 수의과학검역원도 2002년 11월 29일 재획득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광우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도 청정국으로서의 축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강건과 함께 일익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